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투르크메니스탄

I. 일반개황

면적	488천 km ²	GDP	92억 달러(2007년)
인구	6.8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1,346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anat
대외정책	대외관계 개선 추진	환율(달러당)	10,650.0

- 구소련 당시 세계 10대 면화생산국에 들만큼 면화, 밀 등 농업부문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설비투자 부진으로 농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음.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이은 구소련지역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확인매장량 2.9조 m³)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동국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91년 구소련 독립 이후에도 니야조프 전임 대통령의 철저한 통제 하에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철권통치가 유지되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구소련 국가로 남아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13.0	9.0	6.0	6.0	6.0
재정수지 / GDP	-2.0	-2.1	-3.2	0.6	0.4
소비자물가상승률	5.6	5.9	10.7	10.5	11.3

자료 : IFS 및 EIU

□ 에너지부문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밀, 면화 등) 생산 부진으로 인해 '07년 경제성장률은 6%를 기록. '08년에는 에너지부문 및 건설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8.5%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전망

□ 공공부문 임금 인상,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가속화

- 생필품에 대한 가격 상한 적용 등 정부의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공공부문 임금 인상,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3년 연속 10%대를 유지. '08년에도 공식환율 평가절하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14.5%를 기록할 전망

□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기록 전망

-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07년 재정수지는 석유수출 수입(收入) 증가에 따른 재원 확충으로 GDP 대비 0.4%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08년에는 연금 지급 재개,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 재정지출 확대에 소폭 적자를 기록할 전망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에너지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석유 및 천연가스가 총수출 수입(收入)의 9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90년대에 전체 수출의 10%에 달했던 면화 생산이 둔화되면서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함.
- '07. 2월 출범한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에너지·정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개발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쇠퇴해가는 면화생산 등 농업부문 활성화 추진. 또한, 수출루트 확보를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 유지

- 전 정부는 물가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금 동결, 고정 환율제도 고수, 생필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해왔음. 또한,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 및 가스·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
- 신 정부가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등 대외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추진 하고는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상당부분 계승하는 한편, 국내경제 전체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가격통제, 고정환율 등)로 인해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음.

□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투르크메니스탄의 '06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9조 m³(세계매장량의 1.9%)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이은 구소련지역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석유 확인매장량은 약 5억 배럴(1억 톤)로 추정됨.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로 투자 확대 전망

- 석유·가스 분야의 높은 개발가능성 등 성장잠재력에 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부진한 편으로, 최근 연간 FDI는 3억~3.5억 달러에 불과.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부문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대신할 신규 에너지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07년 9월 현재 Burren Energy(영국), Mitro International(오스트리아), Dragon Oil(UAE), Petronas(말레이시아), Maersk Oil(덴마크) 등 5개사가 PSA계약 체결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 및 다른 서방국가들도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를 검토중
- 단, 석유·가스 분야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석유·화학, 면방, 건설, 통신분야 등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정부가 투자제도 미비, 환율제도 불안정, 수출루트 확보의 어려움 등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보다는 근시안적이고 불투명한 재정운영 경향

- 국유기업에 대한 과도한 면세혜택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입이 정부재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세수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나머지 80%는 수출 수입에 의존. 또한, 전 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낙후된 인프라 및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보다는 가스·전력의 무료 공급, 주택·생필품의 저가 공급 등 일시적인 성과를 노리는 근시안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음.
- 신 정부는 감사원 기능의 Supreme Chamber of Control 신설로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나, 단기간에 뚜렷한 개선 성과를 내지는 못할 전망이다.

□ 공식 고정환율의 평가 절하를 통한 암시장 환율간 격차 축소 추진

- 정부는 '08년 1월 1일부로 통계 작성시에 적용되는 공식 고정환율을 17% 평가 절하하여 미달러당 6,250 Manat으로 조정하였고, 상업환율(commercial exchange rate, 미달러당 20,000 Manat)을 새로 도입하여 기업 및 개인들이 환전 시에 적용토록 함.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달러당 24,000 Manat에 달하는 암시장 환율과 상업환율간의 차이를 '09년까지 점차 축소해나갈 방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67	-506	257	700	1,698
경 상 수 지 / GDP	1.3	-8.8	4.0	9.2	18.6
상 품 수 지	966	550	1,301	1,718	3,050
수 출	3,468	3,870	4,939	5,774	7,567
수 입	2,502	3,320	3,638	4,056	4,517
외 환 보 유 액	2,673	2,714	3,442	4,994	5,173
총 외 채 잔 액	1,743	1,522	1,058	881	..
총외채잔액 / GDP	29.5	22.6	14.0	8.9	..
D. S. R	12.9	10.5	6.2	4.3	..

자료: IFS, EIU

□ 경상수지 확대 추세

- 경상수지 흑자는 '06년 7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석유·가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07년에도 17억 달러를 기록(GDP의 18.6%). '07년 말 러시아와의 수출 가격 재협상으로 '08년부터 천연가스 수출단가가 인상(1,000m³당 100달러→상반기 130달러, 하반기 150달러)됨에 따라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

□ 외환보유액 꾸준한 증가세

- 에너지 수출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로 '07년 말 외환보유액은 약 52억 달러

(GDP의 57%)를 기록하였으며, '08년 3월 말 현재 월평균수입액은 9.2개월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8.9%로 낮은 수준

- 총외채잔액은 '03년 말 17억 달러에서 '06년 말 현재 약 9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D.S.R은 수출 수입 증대에 따라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06년 말 현재 4.3%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야당 및 반대세력이 없어 정치 안정 가능

- '07년 2월 11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전임 부총리이자 보건부 장관이었던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의회(Khalk Maslakhaty) 및 엘리트 집단의 절대적인 지지와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철권통치를 자행해온 니야조프 전임 대통령의 '06년 말 사망으로 신임 대통령 선거 실시

- 베르디무하메도프 신임대통령은 여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구공산당인)을 주축으로 하는 단일정당체제 유지 및 실질적인 반대세력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의 가스 수출가격 재협상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 예상

-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생산량(연간 600억~650억 m³)의 70% 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니야조프 정권이 '03년 체결한 25년 장기 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이중 90%(약 400억 m³)를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Gazprom의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음.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저가 구입 후 우크라이나에는 고가판매를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에서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06년 10월부터 천연가스 수입가를 1,000m³당 6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08년부터는 상반기는 130달러, 하반기는 150달러에 가스를 공급받고 있음. 이는 최근 중국, EU 등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 확보를 위해 동국의 자원 확보에 나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동국에 일부 이익을 배분해줌으로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독식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됨.

□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 '06. 4월 중국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07. 8월 중국 CNPC 주도의 총 연장 7,0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Central Asia Gas Pipeline) 건설에 착수

□ 최근 이란과의 가스분쟁 다시 촉발

- 정부는 수출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08년 초 이란에 대한 가스 수출을 중단. 이란은 이러한 중단 조치를 가스 가격 인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획책이라며 재협상을 거부하고, 터키 등 인근국가로의 가스 수출 중단으로 대응. 이에 '07년중 다소 개선 기미를 보였던 양국 관계는 가스분쟁으로 다시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사태의 추이가 주목됨.

□ 러시아, 중국, 서방국가의 에너지 확보 각축장으로 부상할 듯

- 중앙아시아 유일의 미개척 자원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원 선점을 겨냥한 러시아, 중국 및 서방국가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동국 정부의 행보가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장기독재정권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이 많지 않아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 낮음

- 전임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15년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이 많지 않고 국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 대통령이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회적 우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3대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 Moody's : B2('99. 7)
- S&P : 없음
- Fitch : 없음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 OECD : 7등급('07. 1) → 6등급('08. 1)
- Euromoney : 133/185('07. 3) → 133/185('07. 9)
- I.I. : 126/174('07. 3) → 125/174('07. 9)

2.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 : 제한적 인수가능
- Atradius : 신용장애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ECGD : 단기인수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음.

3. 외채상환실적

□ 수출 호조에 따른 외환보유액 꾸준한 증가세

- 최근의 에너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03년 27억 달러에서 '07년 52억 달러로 크게 증가

* 그러나 정부의 각종 보조금 혜택 및 가스·전력의 무상제공, Manat화 고정환을 유지할 위한 자금운용 등으로 인해 실제 외환보유액은 추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총외채잔액 낮은 수준

- '06년 말 현재 총외채잔액은 8억 8천만 달러로 GDP 대비 8.9% 수준

V. 종합의견

- 경제적으로 에너지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 지속, 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 구조적 취약점이 있으나, 신정부가 대외적인 면에서 개혁 및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증가 등 경제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 정치적으로 '07년 2월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단일정당체제 유지, 언론 통제 등을 통해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사회적 우발 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 대외적으로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필두로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EU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증진도 추진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심현정(☎02-3779-6655)

E-mail : hjshim@koreaexim.go.kr